



■ 아이티, 프랑스, 미국

심재중

올 1월에 강력한 지진이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켜 버렸다. 23만 명 이상이 죽었고, 160만 명 정도가 집을 잃었다. 지진이 아니었더라도 아이티의 사회 경제적 현실은 이미 암담한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런저런 지표들을 들먹이는 것조차 거의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다. 어쨌든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국제사회는 약 1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상원조를 아이티에 약속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로 집행된 액수는 애초에 약속된 금액의 약 2~3%에 불과하다고 한다. 게다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긴 하지만, 원조금의 효과적인 관리와 집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아이티 정부에 없다는 사실이다. 흑인노예 반란을 통해 1804년 독립을 쟁취하였고 ‘세계 최초의 흑인 독립공화국’이라는 명예로운 지칭까지 누려 온 아이티가, 독립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온전한 국가 기반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에 카메룬 출신의 저명한 탈식민주의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인 아셀 음베크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반세기를 즈음하여 이루어진 『리베라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이티의 유령이 아프리카에 떠돌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주권을 되찾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를 떠나 살고 싶어한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그는 아프리카 독립 50년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였다는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해 줄 분명한 증거를 찾아낸다. 물론 음베크가 보기에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서구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신식민주의적 지배—종속 관계에 있다.

예컨대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중앙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자체적인 국가 발전의 여건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을 통틀어 그 나라들의 현실이 가장 암울하고 비극적인 까닭이 무엇일까? 역으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말리 같은 나라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독립 직후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 흑인민족주의 이념을 주창한 많은 정치지도자들(콩고의 파트리스 루뎀바 같은 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이 현지의 기득권 계층과 군부 세력, 그리고 서구 열강의 공모 앞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음베크가 염려하는 것은 “아이티처럼, 앞으로 150년이 더 지나도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온전한 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정치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

다는 것, 요컨대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물론 아이티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다. 전 국민의 70~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고, 남미와 미국 간 마약거래의 중간거점 역할에서 파생되는 경제 효과를 팔호치고 나면, 저임금에 기초한 전자제품 조립과 섬유 산업이 국가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럼에도 아이티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식민—신 식민 지배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노엄 촘스키는 음벰베와 유사한 관점에서, ‘고통 받는 국가 아이티의 비극’을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역사적·국제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이유는 오늘날 아이티가 겪고 있는 불행이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적 사건이나 현실에 대해 대부분의 보수적 미디어가 제공하는 ‘왜곡된 초상’ 때문에 ‘세계의 진실이 가려져 왔을 뿐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촘스키의 입장에서, 아이티의 비극이 지속되어 온 역사적 문맥은 명백하다. ‘정의상 필연적으로,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독점한 엘리트 집단들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해병대’를 주둔시켜 아이티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하지만, 그것은 아이티인 자신들만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보여 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아이티 사태’ 앞에서 촘스키 같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국제사회, 특히 프랑스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배상’이다.

7월 14일은 프랑스의 가장 큰 국경일인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다. 그런데 올해 7월 14일에는 프랑스에서 작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해프닝 하나가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몇몇 활동가가 프랑스 외무부 웹사이트를 고스란히 복제한 다음, 거기에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의 ‘대혁명 기념일 특별담화’ 라는 가짜 동영상을 올려놓았던 것이다. 동영상의 핵심 내용은 대략 이렇다. ‘오늘날 아이티의 불행은 단순히 지진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온 국제적 역학관계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는 향후 50년에 걸쳐 아이티에 170억 유로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기본조약을 아이티와 체결하였다. 이는 1804년 아이티 독립 직후에 현지의 프랑스 본국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프랑스가 요구해, 1825년부터 1947년까지 아이티가 프랑스에 지불한 바 있는 9천만 골드 프랑을 그간의 인플레이와 이자를 고려해 환산한 금액이다.’

곧바로 프랑스 정부는 그 해프닝의 주모자들을 고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8월 16일에는 프랑스의 일간지 『리베라송』에 동일한 액수의 ‘배상’ 을 프랑스에 요구하는 전 세계 지식인들의 공개서한 하나가 실렸다. 90명이 넘는 서명자들 중에는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 알랭 바디유, 자크 랑시에르, 영화감독 마티유 카소비츠,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그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요구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이티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환기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프랑스가 스페인에 뒤이어 지금의 아이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7세기 중반부터였다. 17세기 말에는 루이 14세가 스페인으로부터 이스파놀라 섬의 서쪽 1/3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인정받으면서 생도맹그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생도맹그의 경제는 사탕수수와 인디고, 담배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카리



생도맹그의 노예반란(1791년)

브의 흑진주' 라는 별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의 생도맹그는 프랑스 대외무역의 1/3, 프랑스가 아메리카에서 얻는 수익의 70%를 담당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이 생도맹그로 끌려왔다. 끔찍한 노동환경과 가혹한 처우 때문에 평균 수명이 10년을 넘지 못했다고 하니, 흑인노예들의 생존환경이 어떠했을지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생도맹그의 흑인노예들에게 정신적 안식처 역할을 해 준 것이 바로 보두교 신앙과 의식이었다.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 속에서, 보두교 신앙에 기초한 노예들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1791년 노예반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란 진압을 위해 파병된 나폴레옹 군대를 격퇴시키고 1804년 1월 ‘아이티’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이후에도, 아이티의 정치 지도자로 부상한 이들은 거의 모두가 물라토이거나 해방노예 출신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프랑스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 프랑스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노예반란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된 투생 루베르튀르(북부의 저택 노예 출신으로 프랑스 어와 라틴 어를 구사)만 하더라도, 1801년 노예제를 폐지시킨 장본인이었지만 새로 만든 헌법에서는 가톨릭을 유일한 공식 종교로 인정하였다. 보두교가 탈주 노예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분파주의를 조장해서 중앙 권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투생이 나폴레옹 군대의 포로가 되어 프랑스의 주 감옥에서 숨지자, 투생의 휘하 장군이었던 북부의 장 자크 데살린(해방노예 출신으로 프랑스 군대의 장교였다가 반란군에 가담)과 남부의 알렉상드르 페티옹(물라토로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제휴하여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흑인노예 반란을 통해 수립된 국가를 쉽게 승인해 주지 않았다. 특히 유럽의 열강들은 노예제의 유지에 뜻을 같이 했고, 그들에게 아이티의 사례



투생 루베르튀르

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신생국 아이티는 독립하자마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아이티 입장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주권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옛 식민 본국인 프랑스의 왕 샤를 10세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옛 식민지 백인들을 위해 아이티는 프랑스에 1억 5천만 프랑을 지불” 하라는 칙령(1825)을 공표하였다(1844년에 9천만 프랑으로 감액). 아이티 국가 총수입의 10년 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초대 통령을 거쳐 황제에 즉위한 데살린이 암살된 뒤에 북부에 따로 왕국을 세웠던 앙리 크리스토프(해방노예로 호텔 식당의 요리사 출신)는 프랑스의 사절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총살시켜 버린 적도 있었다. 반면에 남부에서 페티옹의 후임으로 시작하여 남북을 다시 통일시킨 부아에 대통령은 프랑스 함대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아이티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빚’을 갚느라 진력이 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국가 통합을 이루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써야 할 재원을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사는’ 데 써 버림으로써, 국가 전체의 안정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독립 200주년을 앞둔 2003년에는 아리스티드 당시 대통령이 이자까지 계산하여 총 217억 달러를 배상·환불해 달라고 프랑스에 요구함으로써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프랑스에 대한 ‘배상’이 끝난 뒤에도 아이티는 끊임없이 대외부채에 시달려 왔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아이티의 총외채는 8억 9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의 중심에 바로 미국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

론 19세기 내내 아이티의 상황은 계속되는 쿠데타와 반란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의 아이티는 철저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미미하지만, 오늘날 아이티 대외무역의 85% 이상이 미국과의 교역이다), 그 미국의 영향력 밑에서 점점 더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어 간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아이티의 정치적 혼란과 자국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명분으로 1915년 아이티에 군대를 파병하였고, 그 이후 1934년까지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군대를 철수시킨 뒤에도 뒤발리에 부자의 30년에 걸친 독재체제(1957~1986)와 협력하면서, 소위 “추악한 부채” (그 기간에 아이티의 부채는 근 20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IMF,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이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 돈 중에서 뒤발리에 일가가 빼돌린 액수만 최소 6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를 누적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미국을 등에 업은 IMF와 세계은행이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주도하면서 쌀, 설탕, 옥수수 등의 미국 잉여농산물이 밀려들어 왔고, 아이티의 농업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아이티의 쌀 생산량은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내수의 절대량을 미국 산 쌀로 충당하게 되었다. 세계 최빈국



뒤발리에와 아이티 군대 장교

중의 하나인 아이티가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에 뒤이어 대표적인 ‘미국산 쌀 수입국’ 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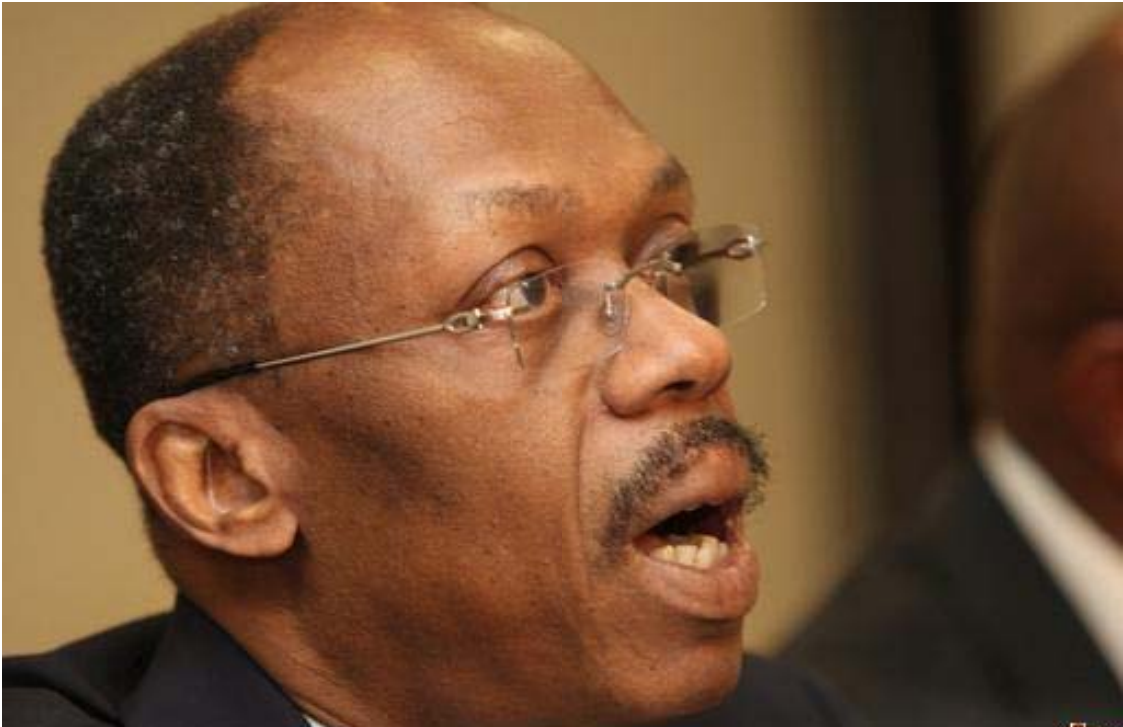
사실 뒤발리에 정권 시절부터 IMF는 주기적으로 ‘시장 자유화’ 를 위한 아이티의 경제개혁에 재정적 지원을 해 왔다. 그리고 1990년 아리스티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의 지원하에 일어난 1991년 쿠데타의 목표 중 하나도 아리스티드 정권의 ‘급진주의적’ 개혁에 제동을 걸고 뒤발리에 시기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1992년 6월 아이티의 군사정권은 세계은행의 관리였던 마르크 바쟁을 수상에 임명하였다. 그는 IMF의 후원을 받아 뒤발리에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고 미국의 지지 하에 1990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인물이었다. 결국 바쟁이 수상으로 있는 동안, 4천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약식 처형되었고, 6만 명 이상이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 등지로 망명하였다. 같은 시기에 CIA는 아리스티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 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3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통치 끝에, 1994년 미국은 2만 명의 ‘평화유지군’ 을 아이티에 파병하였다. 미국은 소위 ‘민주주의 복원’ 을 내세우며 아리스티드를 권좌에 복귀시켜 주었지만, 실제로 아리스티드는 ‘1996년의 남은 임기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IMF의 요구에 철저히 따른다는 조건’ 하에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비상 경제재건 계획」 이라는 이름하에 강력한 시장 자유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새 아리스티드 정부는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차관을 받아 기존의 외국 채권자들에 대한 국가 채무의 연체금을 정산해야 했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재건 계획은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강력한 긴축 정책(교원 감축, 의료인력 감축 등)을 강요하였다. 이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던 아이티의 공공서비스를 거의 완전히 와해시키는 결과

를 낳았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리스티드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라발라스’ 당을 이끌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2004년 2월의 쿠데타로 다시 해외 망명 길에 올라야 했다. 선거 당시 아리스티드는 최저임금 인상, 학교 신설, 문맹퇴치 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가 재정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선거 직전에 전임 정부가 IMF와 체결한 협정에 종속되어 있었다. 예컨대 2003년 IMF는 ‘연료 가격 유연화 체계’의 시행을 요구하여 석유 가격을 130%나 폭등시켰다. 북부와 동부에서는 교통이 마비되고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아리스티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반(反)아리스티드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였다. 나아가 IMF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구실로 공공 부문의 임금을 동결시켰고, ‘해외 투자자들의 유인’을 명목으로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을 관철시켰다.

그런데 아리스티드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피신하기 직전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아이티의 심각한 분열과 격렬한 폭동에 기여하였다.” 요컨대 미국은 소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군의 쿠데타를 지원한 셈이다. 그러나 CIA의 지원을 받아 반군을 이끈 주도세력은 뒤발리에 체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통통 마쿠트’ 출신 인사들, 그리고 1991년의 군부 쿠데타 기간 동안 민간인과 정치인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이었다. 또한 「민주주의 공조」라는 이름의 200여 개 정치단체 연합체와 「184개 시민단체 연합」(G-184)이 연대하여 반아리스티드 전선을 형성하였다. G-184의 리더 앙드레(앤디) 어페이드는 아이티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이자 뒤발리에 체제 시절 설립된 섬유·전자제품 조립기업의



아리스티드 아이티 전 대통령

소유주였다. 그의 회사는 미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상품을 생산하면서 평균 일당 68센트를 노동자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어쨌든 반아리스티드 정치·시민 단체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FND)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CIA는 반군을 은밀히 지원하고 FND는 정치·시민 단체들을 지원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아이티의 절망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은 ‘실제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아리스티드도 술한 부패와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에 대해 촘스키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설사 아리스티드가 성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독립 100주년이던 1904년부터 지금까지 아이티의 국가는 「데살린의 노래」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선조들이 족쇄를 끊었을 때」라는 노래가 국가로 사용되었다. 독립 후 초대 통령이었던 장 자크 데살린의 이름을 딴 「데살린의 노래」는 “아이티를 위해, 우리 선조들을 위해/ 하나 되어 나아가자, 단결하여 나아가자”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옛 국가는 “우리 선조들이 족쇄를 끊었을 때/ 그건 팔짱끼고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주인이 되어 일하기 위해 노예들은/ 죽음과 입맞추었다/ 선조들이 흘린 피가 우리 들판의 거름이 되었다”로 시작된다. 보다시피 독립 100주년을 계기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가사로 바뀌긴 했지만, 두 노래 모두 ‘흑인노예 반란’을 아이티 국가정체성의 뿌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독립 20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이티인들의 질곡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세계의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그나마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이티에 약속된 적지 않은 원조금이 또 다시 서구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악한 방식으로 재단되지 않고,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인 듯하다. ■